

# 무안공항, 내년 광주공항과 통합...글로벌 공항 '비상'

비약의 시작점에 선  
새 천년 전남

〈목 차〉

제 1부 성장 기반을 닦다

제 2부 곳곳에 활력 샘솟다

제 3부 미래 도약 나선다

제 4부 지속성장 동력 갖추다



무안국제공항은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이다. 민선 7기 전남도는 2021년 광주공항과의 통합 등 미래를 내다보며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서남해안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으로 충청권 국제여객을 무안공항으로 끌어들이고, 보잉 747기 등 대형 기종 착륙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연장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전남도 제공>

## <4>무안국제공항, 서남해안허브공항으로

철도와 도로, 공항은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특히 북한을 거쳐 대륙으로 나아갈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하늘길은 세계와 전남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점에서 중요함은 남다르다. 세계화시대, 사람과 물자의 국가 간 이동이 일상화되면서 국제공항의 보유 여부, 그리고 국제공항의 경쟁력은 지역 발전의 핵심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 7기 전남도가 지난 2007년 개항 이후 광주공항과의 통합 논란, 기반·편의시설 미흡 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무안국제공항을 서남해안 허브(hub)공항으로 육성하는데 공을 들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는 2028년에는 지척인 전북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서는데 '지역공항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전남도는 2020년 개항 13년 동안 '과제'로 남아 있던 기반 및 편의시설 설치 예산을 확보하고, 중국·동남아·일본 등 노선을 개척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전 세계 공항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가운데 전남도는 오는 2021년 광주공항과 통합 등 미래를 내다보며 무안공항을 명실상부한 한반도 서남권 관문 공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몰입 작업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예산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0억원, 무안공항 자동출입국 심사대 교체 및 증설 6억원 등을 반영해 현재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이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공사도 조기 완공해 공항과 철도의 결합에 나선다. 이를 통해 충청권 국제 여객 수요를 선점하고,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해 국제공항으로서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호남권 유일 국제공항, 무안공항 역사적 개항= 호남권 유일의 국제공항인 무안국제공항은 지난 2007년 11월 개항했다. 우리나라가 21세기 동북아 물류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국토 서부권에 거점 공항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인천-무안-김해의 3각축 형성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여론도 작용했다. 1998년 기본계획 고시, 1999년 착공에 이어 2007년 11월 8일 역사적인 개항식이 열렸다.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자리 잡은 공항은 부지면적만 268만2000㎡. 2800m×45m짜리 활주로 1개를 갖췄다. 연 14만 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다. 여객청사 규모는 2만9106㎡. 국내 여객 94만명과 국제 여객 416만명 등 연간 510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화물터미널에서는 연간 5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다. 주차장 면적은 6만 6990㎡로 한꺼번에 차량 1871대를 주차할 수 있다.

2008년 5월에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기능이 무안공항으로 이전했다. 공항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변

곡점이다. 광주공항 국제선 이전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정부가 당초 무안국제공항 개항의 전제조건이 광주공항과의 통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강행했다. 2008년 5월 무안공항-광주 고속도로가 개통, 접근성을 높였다. 2017년 11월에는 논란 끝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무안국제공항 경유가 최종 결정됐으며 올 하반기 착공해 2025년 개통 예정이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현재 일반선(최대 시속 150km)으로 된 나주 고막원에서 목포 임성리 구간(연장 43.9km)에 고속철(최대 시속 300km)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충청권에서 1시간 내에 무안공항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 서남해안권 허브공항으로=민선 7기 전남도는 개항 취지대로 무안국제공항을 서남해안권 허브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광주공항과의 통합,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무안공항 주변 항공특화단지 조성 추진 등이 대표적이다. 현재 국내선만 운항 중인 광주공항의 경우 군공항을 제외한 민간공항을 오는 2021년까지 무안공항으로 통합, 이전한다. 2018년 8월 민선 7기 광주시·전남도·무안군이 전격적으로 체결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이다. 광주·무안공항 통합은 2011년 1월과 2016년 4월 국토교통부 공항개발중장기 계획고시로 추진해왔으나, 민간공항 이전은 광주시가, 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전남도와 무안군이 반대하면서 8년여간 지역 갈등만 부추긴 채 공전해왔다. 전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이 무안공항으로 통합되면 연간 최소 200만명(광주공항 2019년 이용객) 이상의 항공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 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준비도 추진 중이다. 동부권 주민 이용 편의를 위해 광주-목포 시외버스 노선 증편을 준비 중이며, 389억원을 투입해 여객청사 및 주차장 증설 등 편의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를 기존 2800m에서 3200m로 연장하는 사업도 민선 7기 들어 본격화됐다. 개항 13년 만에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설계·착공비 20억원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무안공항은 전국 15개 공항 가운데 4번째로 보잉 747기 등 중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해진다. 일부에서는 "미주·유럽 노선 유치도 더는 꿈이 아니다"는 전망까지 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송정-목포) 사업도 조기 완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올해 예산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을 위한 보상 및 착공 사업비(1800억원)가 확보되면서다. 전남도는 예산 확보로 당초 2025년이었던 전 구간 개통 시기를 2023년까지 앞당길 수 있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에 자리 잡은 무안국제공항 청사.



승객들이 무안국제공항 청사와 여객기 사이 통로를 지나 탑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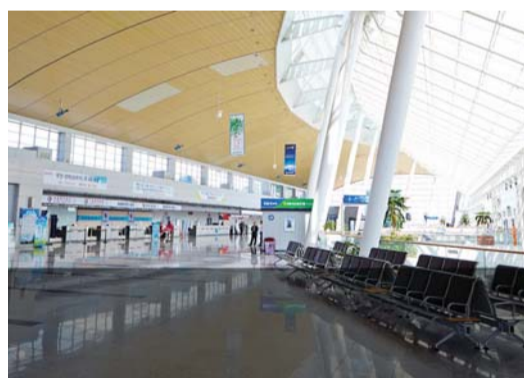
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남권 거점 국제공항으로서 무안공항의 기반을 닦은 이후 중국·동남아·일본·광 등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 항공편 증가와 함께 이용객 증가를 노린다는 계획이다.

◇'무안공항 주변을 항공특화산업단지'로=전남도와 무안군은 무안공항 주변을 항공특화산업단지(MRO)로 조성하는 신사업도 추진 중이다. 항공특화산업단은 항공정비와 운항서비스 기능 등을 갖춘 산업단지, 대체로 그 지역 미래전략업의 거점 구실을 한다.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점검·정비를 위해 연간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전남도 설명대로라면, 시장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은 셈이다. 무안 항공특화산업단 조성사업은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가 무안 망운면 일원의 항공특화산업단지 지정계획을 심의, 확정하면서 본격화됐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인천~무안~김해 3각축 국토균형발전  
호남권 유일 국제공항 2007년 개항  
연 14만회 항공기 이착륙 가능  
연간 여객 510만명 수용

호남고속철 개통엔 충청권서도 이용  
활주로 연장사업 본격화 중대형 이륙  
미주·유럽 노선 유치 현실화  
공항 주변 항공특화단지 조성 추진도



무안국제공항 청사 내부 모습.

## “내년이면 연간 이용객 최소 300만명...흑자공항 거듭날 것”

박일상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장

“2021년 광주공항이 무안국제공항과 통합하면 연간 이용객이 최소 300만명으로 폭증할 겁니다. 200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전남도·무안군 지원 없이 흑자공항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활주로 연장 공사,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끝나면 보잉 747도 이착륙이 가능해지고 충청권 국제여객까지 노릴 수 있어요. 미주·유럽노선 유치도 더는 꿈이 아닙니다. 무안공항에 기반을 둔 항공사만 신설된다면 바랄 게 없습니다.”

박일상(70)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일 '꿈'이 눈 앞에 다가왔으며 희망에 부풀어있었다. 무안공항 개항 이후 13년간 위원장을 맡아온 그는 마치 '무안국제공항 전문가'처럼 말에 막힘이 없었다.

전남도에서 공항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조차 “공무원은 정기 인사 때문에 1~2년이면 바뀌어 당면 과제는 숙지고 있지만, 그간의 사정과 전체적인 그림은 박일상 위원장만 못 하다”고 소개할 정도다.

박 위원장은 “코로나 19만 안 터졌으면 올해는

‘공항 활성화’ 단체장 의지가 중요  
신규노선·적자노선 유지 형세 투입은  
노선 다변화 따른 이용객 증가 가져와  
‘야간운항 제한 결정’ 철회 큰 역할  
무안공항 기반 둔 항공사 신설됐으면

개항 첫 100만 이용객 유치가 가능했으리라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무안국제공항이 서남해안권 거점 국제공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용성 광주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장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의지를 가져야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예산이 투입됩니다. 신규 노선 유치와 적자 노선 유지를 위해 당장은 형세가 투입되지만 멀리 보면, 노선 다변화에 따른 이용객 증가라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옵니다. 무안공항

을 보세요. 개항 이듬해 항공기 운항 편수는 1841편, 여객은 13만명에 그쳤지만, 지난해는 6585편에 이용객만 90만명에 달합니다.”

박 위원장은 무안군 변영회장, 무안군의원 등을 지냈다. 무안공항 활성화가 곧 무안군 발전이라는 믿음을 아래 13년여간 무안공항 활성화추진위 위원장을 지내며 여러 일화를 남겼다.

2017년 말 국토교통부의 ‘무안공항 항공기 야간운항 제한 결정’을 뒤집는데 일조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당시 무안군 변영회장, 한국공항공사 무안지사장, 공무원, 항공사 지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참석자 중 한 명이 부산 지방항공청이 무안공항출장소 관제사 부족을 이유로 2018년부터 야간운항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다음날 바로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을 향의 방문에 나섰습니다.”

박 위원장은 “야간 운항 제한 결정은 지난 10년간의 무안공항 활성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정부의 국토균형 발전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국내 15개 공항 가운데 야간 운항 제한 시간(Curfew)이 없는 공항은 인천공항과 무안공항밖에 없다. 군공항과 연계되거나 지리적 조건으로 제주공항을 포함한 나머지 13개 공항은 운항시간 제한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안국제공항만의 장점이다.

박 위원장은 오는 2028년 완공 예정인 전북 새만금국제공항과의 경쟁에 대해 “조금은 걱정하지만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진단했다. 무안국제공항이 개항 13년만에 제 규모에 오른 만큼 새만금국제공항 역시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박 위원장은 광주와 전남이 무안국제공항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위가 무안군만으로 꾸려진 지 13년째”라며 “이제는 타 시·도처럼 전남도 차원에서 명망 있고 유능한 분들을 모셔와 활성화 추진위를 꾸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